

나주배 효능 알린다...전문가 학술대회

14일 동신대 혁신융복합캠퍼스 건강 기능성 성분 등 발표·토론 소비 촉진 산업 활성화도 모색



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배 최대 주산지인 나주시가 명절을 앞두고 14일 '나주배'의 효능을 알리는 학술 행사를 연다. 나주시는 이날 오후 2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동신대학교 혁신융복합캠퍼스에서 '배(梨) 건강 기능성 성분과 효능'을 주제로 한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나주지역 배 생산량은 3만5000t으로, 전년 생산량(4만7000t)보다 25.5%(-1만2000t)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범 나주시 과수기술팀장은 "나주 배 재배면적은 1809ha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올해는 저온 현상이 지속하면서 작과가 불량해 생산량이 줄었다"며 "나주 배 생산량은 전년보다 20~30% 줄어

수출량은 3년 뒤인 2026년에 1만t으로, 올해의 2배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이 행사에서는 배에 함유된 건강 기능성 성분과 효능을 연구해온 대학교수와 산학연 전문가의 주제 발표, 토론 등을 통해 배 소비 촉진과 관련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명품 나주배 만들기를 위한 배 산업 육성 방향'(최춘욱 나주시 배원예유통과장)과 '배 산업 활성화 방안'(윤종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경제연구실장), '배 품종과 소비, 배 자원 활용 가능성'(송장훈 배연구소 연구관), '우리 배가 가진 건강 기능성 물질'(문제학 전남대 교수), '음식에서의 배 활용'(노희경 동신대 교수)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배가 가진 건강 기능성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물론 소비 촉진을 통한 나주배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이혁영(왼쪽) 씨월드고속웨리 회장이 박홍률(가운데) 시장에게 전국체전 기부금 1500만원을 전하고 있다.

씨월드고속웨리, 전국체전 성공기원 기부금

목포서 창사 25주년 기념식

언제나 새로운 해상여행을 선도하는 제주기점 연안여객선사 씨월드고속웨리(주) (회장 이혁영)가 지난 11일 목포 스키어웨딩컨벤션 아노이홀에서 창사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임직원, 관계기관 및 단체장, 협력업체, 우수고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년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위한 지속가능한 씨월드고속웨리만의 브랜드 구축과 신사업 진출 등 비전 선포와 더불어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또 비전 중 하나인 사회 공헌을 통한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에서 15년만에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전에 기부금 5000만원을 목포시에 전달함은 물론 목포-제주, 진도-제주, 우

수영-추자-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각 선박에 전국체전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공기원을 위한 힘을 보탤다.

이혁영 회장은 "창사 25주년이라는 뜻깊은 날,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좋은 취지의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추진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나눔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씨월드고속웨리(주)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활동은 사랑의 밥차, 연탄 나눔행사, 소년·소녀가장 및 외국인 근로자 초청 만찬 음악회, 범죄피해자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초청-사랑실은 제주 드림투어, 복지재단 기부 등이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광양시 공유자원 204개 정비 누리집 공개

광양시가 총 204개의 공공자원 등록을 전부 새로 정비해 공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 개방자원들은 '공유누리' 누리집(eshare.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지역별·시설별·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공유누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공공 개방자원(각종 시설·

회의실·주차장 등)을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이다. 공유지도를 보면 자신의 주변 공공 개방자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는 체육시설 6곳, 회의실·강의실 등 28곳, 숙박시설 43곳, 물품 127점 등 모두 204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전국 103개 지자체 순천시 건강도시협의회

14~15일 정기총회·학술행사

전국 103개 자치단체가 14~15일 순천에 모여 '17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행사를 연다.

이번 총회는 이틀간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이곳에서 정기총회와 국제 학술행사를 열 예정이다. 행사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 건강도시 방향'이다.

103개 회원 도시와 학술위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공동정책 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건강도시를 위한 지역사회 교류 국제 포럼과 건강도시 우수사례-건강도시 지표 발표, 스마트 건강도시 시범설계사업 설명회 등이 이어진다. 회원 도시들은 건강도시 정책을 공유하고,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탐방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가 지향하는 모든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있다"며 "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들이 함께 모여 우수 건강정책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완도군(군수 신우철·왼쪽 네번째)이 지난 8일 '완도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 기념식'을 열고 수출길에 오르는 완도 비파·외인과 색깔보리 커피 등을 들여보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 비파·색깔보리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

와인·농축액·커피 3종 선적

완도 비파·색깔보리를 활용한 가공식품이 중국에 처음 수출됐다.

완도군은 지난 8일 완도비파영농조합법인 가공공장에서 '완도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에 중국으로 가는 농식품은 비파 와인과 비파 농축액, 색깔보리 커피 등 3종이다.

중국 JHE 글로벌을 통해 이들 수출품은 광양항에서 선적되고 중국 시안, 상하이, 윈저우시 등으로 전해진다.

완도군은 JHE 글로벌과 열 차례 넘게 협의를 한 결과 이번 수출을 성사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전남 농식품 수출 확대 마케팅 보드 육성 사업' 지원도 받았다.

연말에는 색깔보리 해조면과 유자 젤리 스틱, 전북 비파 음료 등도 중국에 수출된다.

수출품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앞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 '중국양림농공회'에서도 선보여진다.

이날 수출 기념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회 완도군의회 의장, 박재선 군의원, 박홍재 전남 농업기술원장, 이복선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걸 중국 JHE글로벌 대표, 김수만 비파영농조합 대표, 오진영 유자발전소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군은 지난 2017년부터 농산물 수출 판로를 본격적으로 개척해 왔다. 2018년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말레이시아·미국에 수출했고, 러시아에는 10년간 1000t(30억원 규모)을 수출하기로 협약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으로 완도 농산물이 수출된 것은 농업인들의 꿈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완도 농산물이 더 많은 해외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